News & News

치협 집행부 구성 완료
이사 16명 선임-회무 능력 검증 인사 발탁

정재규 협회장 등 새회장단은 이사진 구성을 마무리하고 '큰 회무 강한치협' 구현을 위한 항해를 시작했다.

정재규 협회장은 이사진 선임에 대해 "많은 분들의 추천을 받아 출신대학에 관계없이 회무 능력위주로 이사진을 선임했다"면서 "이미 前집행부나 서울지부 등에서 회무 능력을 검증받은 훌륭한 인사들이 기용돼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이사진에는 직전집행부에서 회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은 박영국 학술이사, 김동기 재무이사, 우종윤 자재이사, 현기용 보험이사가 그대로 유임됐으며, 조영식 보험이사는 기획이사에서 자리를 옮겼다.

총무이사에는 강남구 회장과 서울지부 총무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회무경험이 풍부한 윤두중 前서울지부 총무이사가 발탁됐으며, 치무이사에는 이병준 前서울지부 치무이사가 자리를 옮겨 업무의 연속성을 꾀할 수 있게 됐다.

법제이사에는 최동훈 前서울지부 공보이사가, 또한명의 학술이사에는 김경남 연세치대 치과재료학교실 교수가 선임됐으며, 국제이사에 문준식 前종로구 이사, 공보이사에 송요선 前경희치대동창회 총무이사, 군무이사에 경북대출신 김재한 前영등포구 회장, 정보통신이사에 박규현 前 서울지부 정보통신이사, 기획이사에 21세기치과병원 장영준 병원장, 섭외이사에 마경화 前서울지부 보험이사, 문화복지이사에 김경선 현서울시여자치과의사회 회장이 선임됐다.

치협 의료개방 거부
WTO 입장정리 위주에 양허요구 않기로

보건의료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WTO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치협은 양허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치협의 입장은 사실상 의료시장 개방을 거부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치협은 지난 4월 제24차 아·태 총회 기간 중 참석자들에게 WTO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을 설문지를 통해 사전조사를 실시했으며, 서울소재 치대 학생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 바 양허요구를 하지 말자는 견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협은 설문 자료를 토대로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분과위원회 양허요구안 요청에 대해 특정 WTO 회원국의 상업적 주재(영리활동을 위한 해외 주재) 문제를 비롯해 전문인력이동 문제, 내국민 해외소비(특정국 소비자의 해외 서비스 소비) 문제, 국경간 공급(국제간 통신수단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문제 등에 있어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 서비스 분야 모두 양허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회장 취임 축하연 강한치협 및 미투정의
회원도 전원부에 힘 모아달라

"강한 치협 구현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합니다."

제25대 정재규 치협회장 취임 및 윤흥렬 고문 FDI 차기회장 당선, 이기택 명예회장 APDF 회장취임 축하연이 지난 22일 오후 7시 인터콘티넨탈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과 이경호 차관, 이원형, 김영환 의원, 황규선 前 의원, 박상동 경희대 총동창회장, 이수구 서울지부 회장 등 정·관계, 치과계 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축하연에서 정재규 협회장은 "치협은 종전의 정부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정책단체로 거듭나고 있다"며 "치협 역사상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출범한 25대 집행부는 어떤 필요에 서건 회원의 뜻과 회원 이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흥렬 FDI 차기회장은 "FDI는 101년 역사와 전세계 152개국 75만명의 치과의사가 가입돼 있는 거대한 국제단체"라며 "아시아 태평양 회장과 세계회장이 동시에 배출된 적은 과거에도 없는 일인 만큼, 이 모든 영광은 그 동안 애써준 선배들과 회원여러분에 돌리겠다"고 말했다.

아시아 태평양 치과의사연맹(APDF) 회장인 이기택 명예회장은 "치협 역사상 최고의 지지율로 당선된 정재규 집행부에 축하인사를 보낸다"며 "치과계를 세계에 빛낸 윤 고문의 노고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국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아·태 회장이 되겠다"고 말했다.